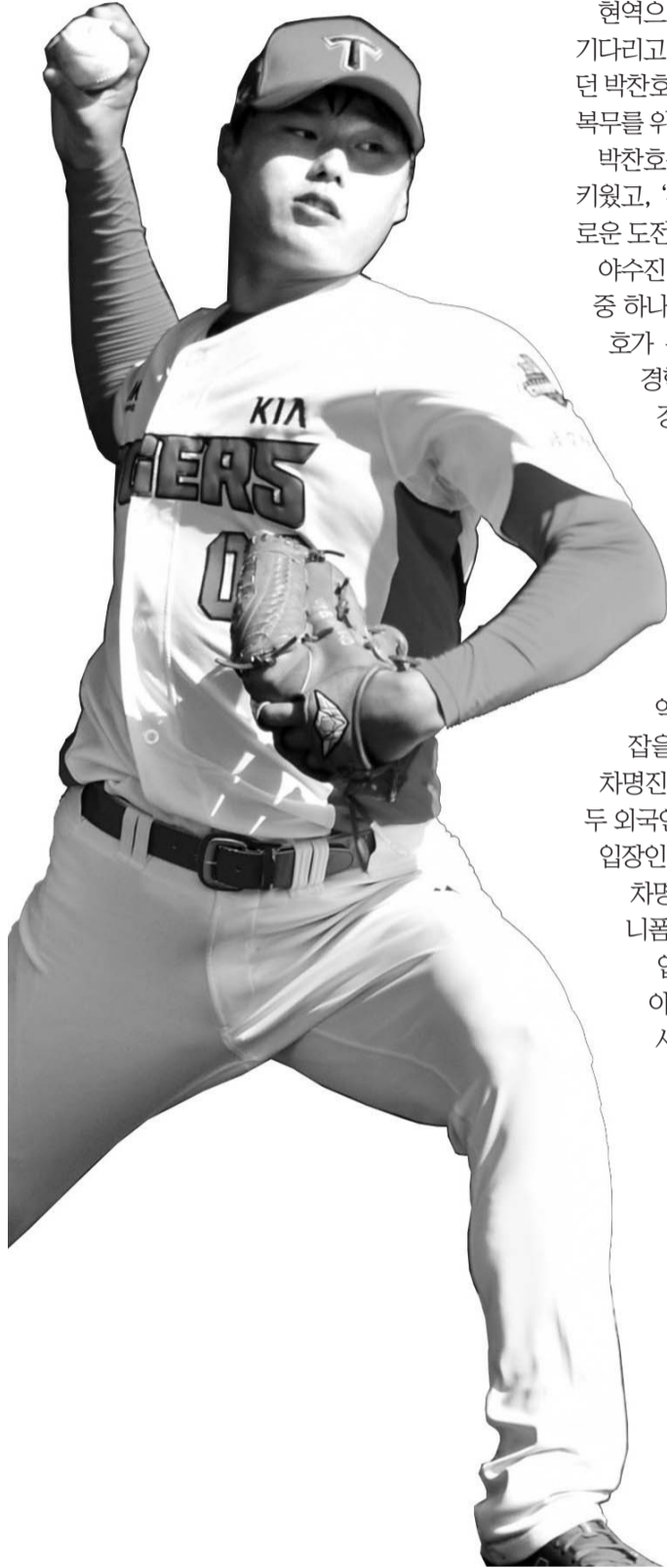


돼지띠 동기 내야수 박찬호·투수 차명진

황금돼지해 KIA 복덩이 꿈꾼다

차명진

입단 후 부상·군복무로 오랜 기다림 투구폼 바꾸며 젊어진 마운드 도전장



‘황금 돼지’의 해 내야수 박찬호와 투수 차명진이 KIA 타이거즈의 복덩이를 꿈꾼다.

2019년은 돼지해다. KIA에서 돼지띠 대표주자는 1983년생 팀 중심타자 최형우다.

박찬호와 차명진은 1995년생 돼지띠 동기로 도약을 꿈꾸는 ‘유망주’들이다. 이들에게 2019년은 기회의 시즌이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찬호는 복귀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입단 당시 수비 좋은 내야수로 기대를 모았던 박찬호는 파워와 집중력이라는 속제를 안고 지난 2년 군 복무를 위해 떠나있었다.

박찬호는 군복무 기간 몸집 불리기에 나서며 힘을 키웠고, ‘간절함’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

야수진 노쇠화 속 KIA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유격수 백업 고민이다. 박찬호가 주로 맡았던 자리가 유격수다. 경험과 성장 가능성으로 유격수 경쟁에 박찬호가 뛰어든다.

박찬호는 “원래 군대에 가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진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다”며 “힘이 붙으니까 방향이 치는 게 재미 있었다. 군에서 돌아와서는 타격 훈련에 집중했다. 수비에 대한 감은 아직 모르겠다. 7월부터 군 전역 선수로 훈련을 시작하는 데 수비도 많이 신경 쓰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차명진도 젊어진 KIA 마운드의 무한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현종과 두 외국인 투수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도전장 입장인 차명진에게는 기회의 시즌인 셈이다.

차명진은 효천고를 졸업한 지난 2014년 1차 지명 선수로 KIA의 유니폼을 입었지만 아직 1군 무대를 밟지는 못했다.

입단과 함께 떠났던 고향 전지훈련에서 팔꿈치 통증을 안고 돌아온 차명진은 이후 수술과 군 복무 등으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에비역’ 신분으로 2017 마무리캠프에 참가하면서 뒤늦게 차명진의 시즌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지난해 어깨가 좋지 않아서 그의 1군 데뷔는 미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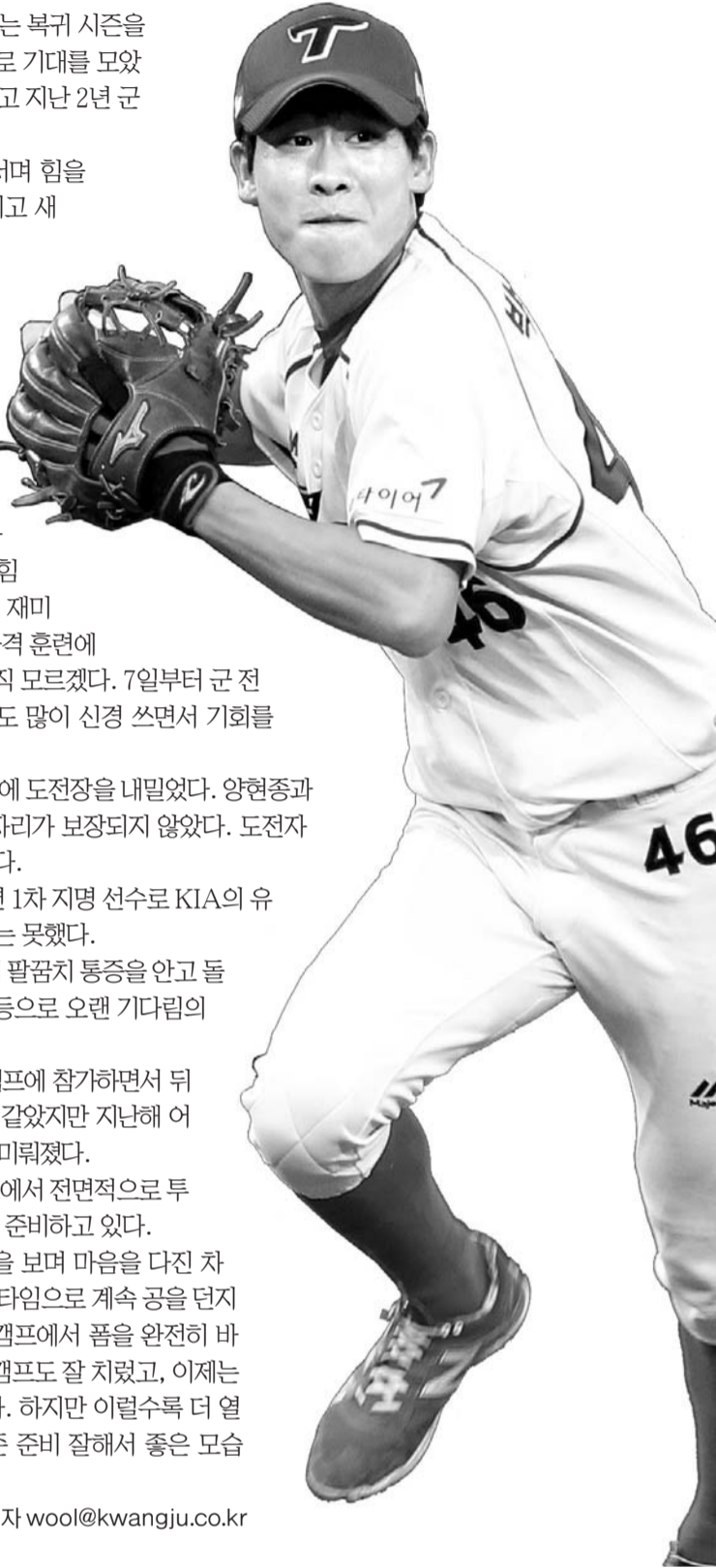
차명진은 지난 2018 마무리캠프에서 전면적으로 투구폼을 바꾸면서 완전한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새해 첫날 고향 순천에서 일출을 보며 마음을 다진 차명진은 “이번 시즌은 안 아프고 풀타임으로 계속 공을 던지는 게 가장 큰 목표다”며 “마무리캠프에서 폼을 완전히 바꿨다. 70% 정도 완성된 것 같다. 캠프도 잘 치렀고, 이제는 정말 부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렇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건강하게 올 시즌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군복무 기간 몸집 불리며 힘 키워 ‘간절함’ 새 무기 장착 새로운 도전



‘독이 든 성배’ 야구대표팀 감독 누구?

KBO 새 전임감독 물색 시작 김경문·조범현 사령탑 물망

한국 야구의 새해 화두는 야구대표팀을 이끌 ‘구세주’를 선임하는 일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위임을 받아 프로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대표팀을 운영하는 KBO 사무국은 지난 30일 김시진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기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새 전임감독 물색을 시작했다.

KBO 사무국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기술위원 임명을 늦어도 이달 중순엔 끝낼 예정이다. 그레야 이달 말까지 새 감독을 뽑을 수 있다.

야구대표팀의 첫 전임 사령탑인 선동열 전 감독이 지난해 11월 전격 사퇴한 이래 이 자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말았다.

당장 올해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 12에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야 하고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프로 현역 감독이 앞으로 20개월 동안 대표팀을 맡는 전임감독을 겸임할 수 없는 만큼 그간 국제대회에서 실적을 남긴 재야인사가 대표팀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김경문 전 NC 다이노스 감독과 조범현 전 kt wiz 감독이 유력한 새 대표팀 감독으로 꼽히는 이이다.

김경문 전 감독은 올림픽에선 마지막으로 치러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에서 9전 전승의 금메달 신화를 이뤘다. 그는 현역 감독 모두가 꺼리던 대표팀 감독직을 떠맡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07년 12월 아시아선수권대회부터 대표팀을 지휘했다.

이듬해 3월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에서 본선 직행권을 따냈고, 본선에서 일본, 쿠바, 미국 등 강호를 연거푸 격파하고 금메달로 대표팀 여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조범현 전 감독은 2010년 광주야구 야구대항전에서 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끌었다.

2009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 감독이 2010년 야구대항전 대표팀을 이끈다는 결정에 따라 KIA 타이거즈에 우승을 선사한 조 전 감독이 야구대항전 수장을 맡았다.

당시 히어로즈 감독이던 김시진 위원장이 대표팀 코치로 조 전 감독과 손발을 맞춰 야구대항전 우승을 합작했다.

조 전 감독은 프로와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사령탑이란 강점이 있다. /연합뉴스

오승환 오키나와서 몸만들기... 올 시즌 콜로라도에서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은 2019년을 일본 오키나와에서 맞이했다. 거취를 놓고 고민이 많았던 그는 일단 ‘몸’부터 만들기로 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12월 23일 권보성 트레이너와 함께 오키나와로 떠났다. 오는 16일까지 오키나와에서 훈련하는 오승환은 잠시 귀국해 신변을 정리한 뒤, 다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오승환은 지난해 10월 17일 귀국하며 “KBO리그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KBO리그를 술렁이게 한 한마디였다.

오승환은 지난해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에서 뛰며 정규시즌에 73경기에 나서 6승 3패 3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2.63을 올렸다.

오승환은 계약상 2019년에도 콜로라도에서 뛰어야 한다.

오승환은 지난해 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 최대 750만 달러에 계약하며 70경기 이상 등판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콜로라도는 7월 트레이드로 오승환을 영입하며 ‘계약 내용’도 이어받았다.

오승환의 국내 복귀 의지가 변수였다. 오승환은 “한국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힘이 다 떨어져서 한국에 오는 것보다 힘이 남아 있을 때 팀에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사실 오승환은 지난해 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계약이 무산될 때에도 국내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오승환의 에이전트와 삼성 라이온즈 간에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KBO리그에서 오승환의 신분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 임의탈퇴 선수’다. KBO리그로 복귀하려면 삼성과 계약하거나, 삼성이 보유권을 풀어야 한다.

오승환 측과 삼성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했다. 구체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승환은 1년 더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2019시즌이 끝나면 오승환의 국내 복귀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 1월 5일(토) ▲광주호산회 1월 5일(토) 장수 장안산 눈꽃산행,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시정권내편 07:15, 문예회관 후문 07:25, 비엔날레 주차장 07:30 *다음카페:광주산악인모산악회 T. 010-3603-7718
- ▲한길산악회 1월 6일(일) 지리산 만복대 산행, 상무정 07:00 무각사 07:10 광주역 07:20 동광주출 07:30 비엔날레 07:40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 ▲광주산악인모산악회 1월13일(일) 경남 함양 지리산 천왕봉,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6:20, 상무 무각사 06:30, 광주시의회 06:35, 완남 21세기병원 06:45, 수완 지하도 위 승강장 06:50, 비엔날레 주차장 07:00, 문예회관 후문 07:10 *다음카페 광주산악인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월 13일(일) 대전 계룡산 (845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863 0304

-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후문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 1월 20일(일) ▲한길산악회 1월 20일(일) 강원 태백산 눈꽃 산행, 상무정 04:00 무각사 04:10 광주역 04:20 동광주출 04:30 비엔날레 04:40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 1월 26일(토) ▲광주호산회 1월 26일(토) 해파랑길20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1월 27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월 27일(일) 전북 완주군 대둔산(879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출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863 0304

- 1월 3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30일(수) 전남 해남 두문산 (703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 ▲광주청록산악회 1월23일(수) 경남 사천 비토도 트레킹(약 9k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50, 교직원공제회관 08:00, 예술회관후문 08: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자본금 및 주권 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500,000,000원 중 금3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총액을 금2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전부 30,000주를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0주를 2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진후 (620513-XXXXXX)
· 최후주사 : 목포시 봉일대로 75번길 14, 304동 309호 (옥암동, 부영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남도 목포시 용암동 996번지
피상속인 망 김진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광역시 목포지원 2018-나544호로 신청하여 2018년 12월 14일 심판 인용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관채권자 및 주주들은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258번지
·대 지 645㎡
·매매가 1700만원(절충)
·소유자 010-4243-3858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창로관
1관 아쿠아맨
2관 PMC: 디 벵커
3관 스윙키즈, 도야락
4관 아쿠아맨, PMC: 디 벵커
5관 아쿠아맨, 범블비
6관 PMC: 디 벵커, 스윙키즈
9관 보헤미안 랩소디, 범블비, 도야락
7관 씨네케틀 언니, 마약왕
8관 씨네케틀 그린치,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언니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목가구와 달항아리
2019.2.21. ~ 3.24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